

참고 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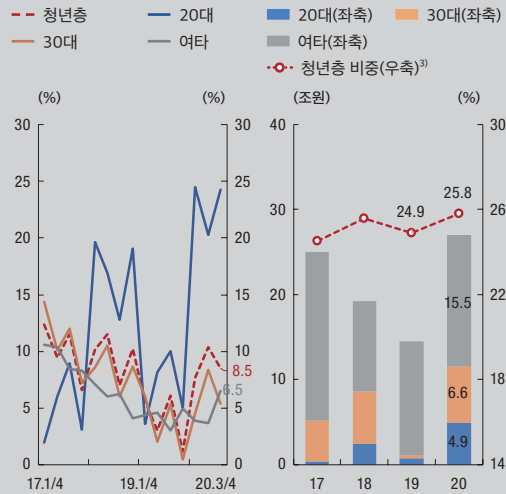
금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대 및 30대(이하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증가 배경,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해 보았다.

현황

(대출규모) 청년층의 가계대출은 금년 3/4분기말 409.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7.0%)을 상회하였다. 특히 금년중 청년층의 분기평균 가계대출 증가액(+11.5조원)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27.0조원)의 42.7%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잔액(1,586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24.9%(20대 4.2%, 30대 20.7%)에서 금년 3/4분기말 25.8%(20대 4.9%, 30대 20.9%)로 상승하였다.

청년층의 가계대출¹⁾ 증가율²⁾

분기평균 증감액 및 비중



주: 1) 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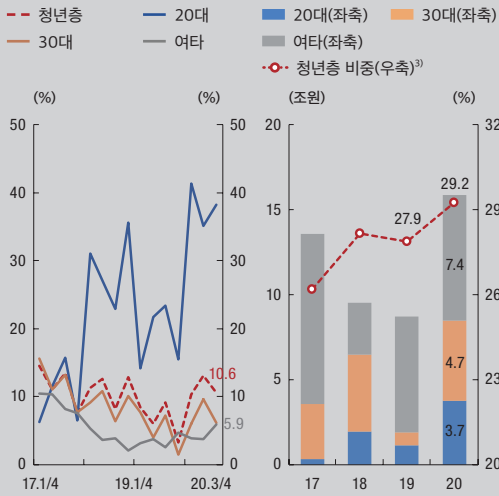
2) 전년동기대비

3) 가계대출 잔액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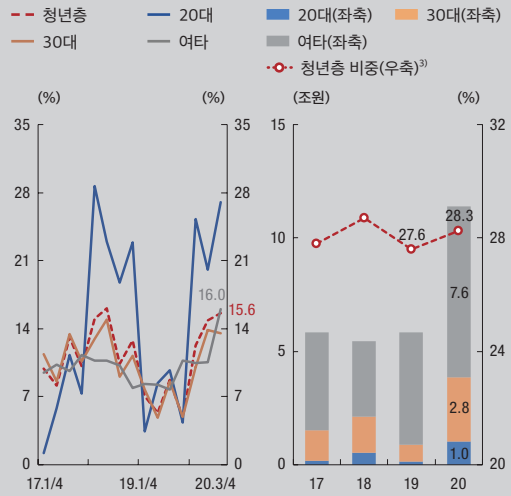
(대출종류별) 금년 3/4분기말 현재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은 260.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중 주택관련대출 분기평균 증가액(+15.8조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3.4%(+8.5조원)로 지난해(21.4%)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주택관련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2%로 지난해말(27.9%)보다 상승하였다. 한편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액(+8.5조원) 중 전세자금대출이 85.1%에 달하는 등 전세자금대출이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¹⁾ 증가율²⁾ 분기평균 증감액 및 비중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전체 주택관련대출 잔액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의 신용대출¹⁾ 증가율²⁾ 분기평균 증감액 및 비중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 주택관련대출 증감 및 잔액¹⁾

(조원, %)

	청년층		전체	
	20.1~9월중 분기평균 증감액	20.3/4말 잔액	20.1~9월중 분기평균 증감액	20.3/4말 잔액
전세자금대출 (A)	+7.2 (85.1)	87.6 (33.7)	+10.6 (67.0)	151.1 (17.0)
주택담보대출 (B)	+1.3 (14.9)	172.6 (66.3)	+5.2 (33.0)	739.3 (83.0)
주택관련대출 (A+B)	+8.5 (100.0)	260.2 (100.0)	+15.8 (100.0)	890.4 (100.0)

주: 1) () 내는 주택관련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의 신용대출은 89.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중 신용대출 분기평균 증가액(+11.4조원) 중 청년층의 비중은 33.6%(+3.8조원)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3%로 지난해말(27.6%)보다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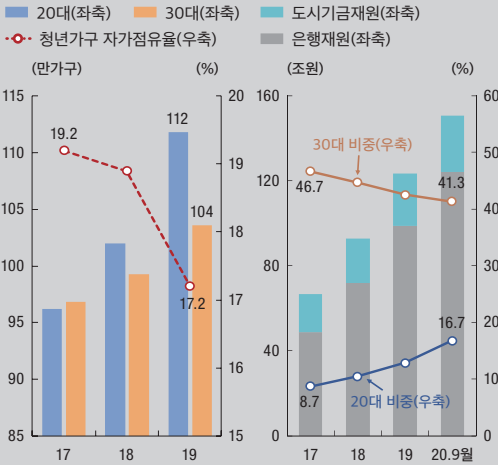
증가 배경

(전월세자금 대출 증가)

청년층 1인가구 증가 및 정부의 청년가구(만 24~34세) 주거안정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층의 전월세 자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였다. 청년층 1인가구 수는 20대를 중심으로 증가한 데 반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꾸준히 하락(17년 19.2% → 19년 17.2%)하면서 이들의 전월세 대출 수요가 확대되었다. 한편 2018년 이후 정부는 20~30대 초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월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정부의 주요 청년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18년 1월 도입),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18년 6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19년 5월) 등이 있다. 이들 대출상품의 2020년 1~10월중 대출실적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

증금대출 등이 7.4조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 보 증실적은 2020년 1~9월중 2.1조원이다. 금년 9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 은 16.7%로 2017년말 8.7%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 였다.

청년층 1인가구 수 및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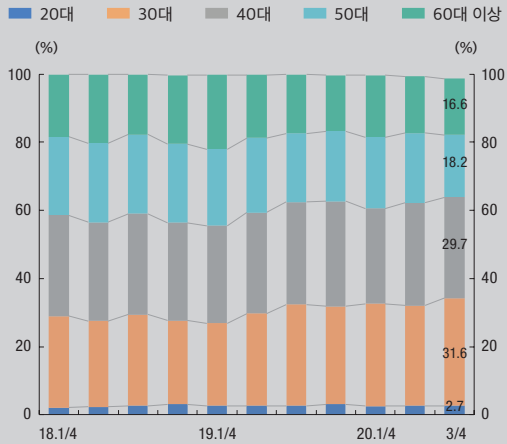


주: 1)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과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주로 취급되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 취급규모는 작음
 2)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청

(30대의 주택매입 수요 확대)

금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서울 및 수도 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 데 30대의 거래가 빠르게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주택 매입 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여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¹)

연령별¹ 서울·수도권 주택거래²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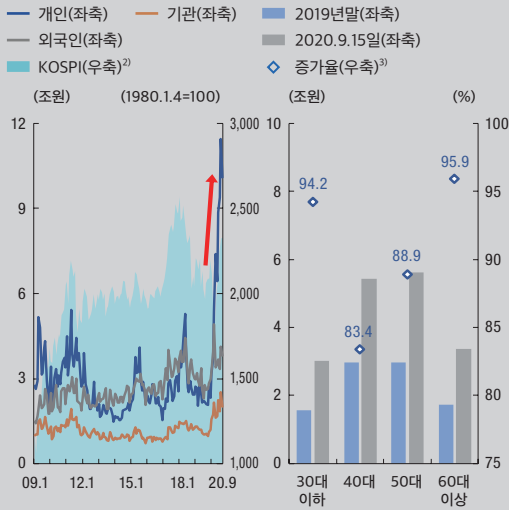
주: 1) 공동매수의 경우 대표매수자의 연령 기준
 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대상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자금조달계획서)

(주식 투자자금 수요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가 급락 이후 개인의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층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모든 연령층의 신용용자²)가 확대된 가운데 30대 이하 신용용자 증가율(94.2%)은 60대 이상(95.9%) 과 함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신용 용자의 높은 금리³) 및 짧은 만기, 엄격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좋은 청년층의 신용대출 상당 부분도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청년층의 주택매입자금 중 금융기관 차입 비중은 금년 1~9월중 30대 29.1%, 20대 26.1%로 여타 연령층(40대 22.0%, 50대 16.7%, 60대 이상 9.2%)보다 높은 수준이다.
 2) 개인이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용자를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로 통상 90일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증권회사는 담보가치비율(주식평가액/용자금액) 기준치 하회 시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며, 추가담보 미납 시 임의로 처분한다.
 3) 2020년 9월말 기준 신용용자 이자율은 5.75(1~7일)~8.75%(180일 초과)이고 2020년 9월중 예금은행 신용대출 금리(신규취급액)는 2.89%이다(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체별 주식거래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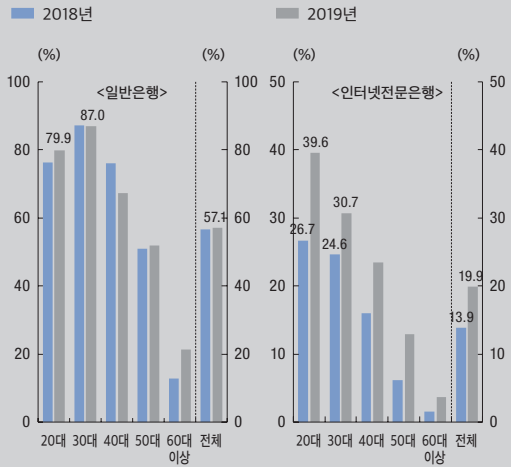


주: 1) 코스피시장 기준(월평균)
 2) 기말 기준
 3) 2020년 9월 15일 기준 전년말 대비
 자료: KOSCOM, 금융감독원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

한편 인터넷전문은행⁴⁾ 출범, 핀테크 혁신 등에 따라 모바일기반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경쟁이 심화된 것도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대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청년층을 주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다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시중은행도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혜택을 비대면 상품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은행대출 증가액에서 전자금융경로를 통한 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중 28.7%에서 2020년 1~9월중 34.2%로 상승하였다.

일반¹⁾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령별 모바일뱅킹 이용행태²⁾



주: 1)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을 포함
 2) 2,65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자료: 한국은행

채무상환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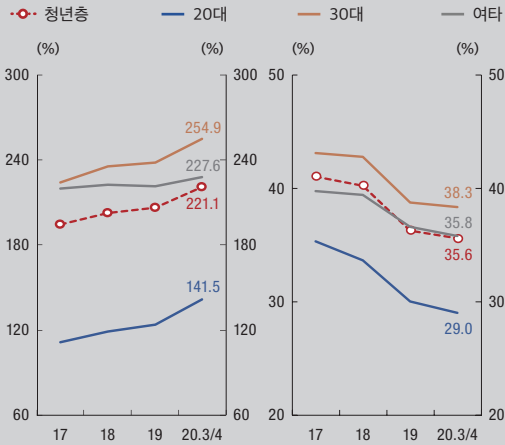
(레버리지)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Loan to Income) 수준은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금년 3/4분기말 221.1%로 여타 연령층 수준(227.6%)에 근접하였다. 30대의 경우(254.9%)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년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청년층의 DSR은 35.6%로 2017년 이후 여타 연령층보다 큰 폭 하락하였다. 이는 동 기간중 대출금리 하락, 가계대출 평균만기 장기화 등 공통 요인 외에도 청년층 차주의 경우 비교적 금리 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⁵⁾ 이자만 납입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30대 가입자가 전체의 약 60%(케이뱅크 94만명, 카카오뱅크 785만명)를 차지하였다.
 5) 청년층의 가계대출 중 은행권 대출 비중은 2020년 3/4분기말 70.3%로 2017년말(63.4%)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 청년층의 은행권 대출 비중은 75.3%, 신용대출은 81.4%로 여타 연령층(68.5%, 70.3%)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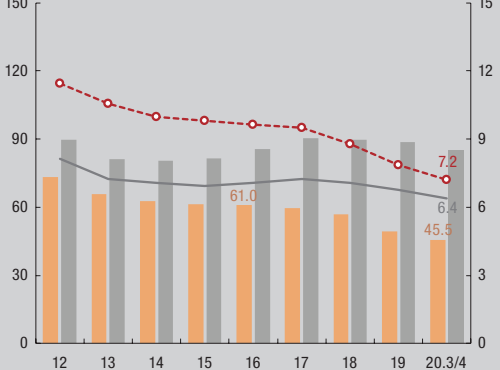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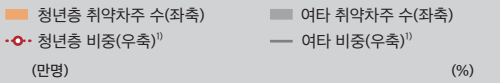
(취약차주) 청년층 중 취약차주⁶⁾ 수는 금년 3/4분기말 45.5만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 전체 차주 대비 비중(7.2%)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여타 연령층(6.4%)에 비해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레버리지(LTI)¹⁾ 연령대별 DSR¹⁾



주: 1) 가계대출 차주 기준.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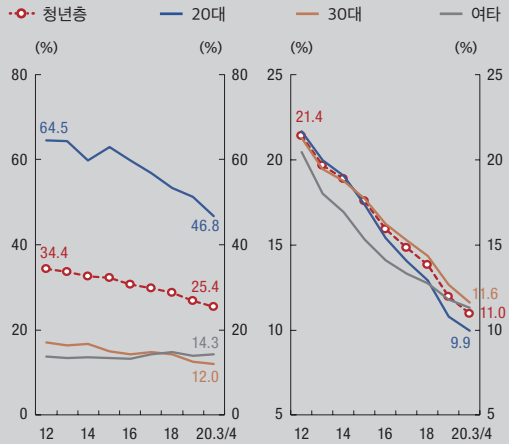
청년층 취약차주 수



주: 1) 청년층(여타) 전체 차주 수 대비 취약차주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저소득·저신용 차주 비중) 청년층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 차주(하위 30%) 비중은 금년 3/4분기말 25.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0대의 경우 아직 절반 정도(46.8%)가 저소득 차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이후 동 비중의 하락폭은 17.7%포인트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컸다. 한편 청년층의 저신용 차주(7~10등급) 비중은 전반적인 신용등급 개선 추세⁷⁾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금년 3/4분기말 11.0%로 여타 연령층과 비슷한 수준(20대 9.9%, 30대 11.6%)을 보였다.

청년층 저소득¹⁾ 차주 비중²⁾ 청년층 저신용¹⁾ 차주 비중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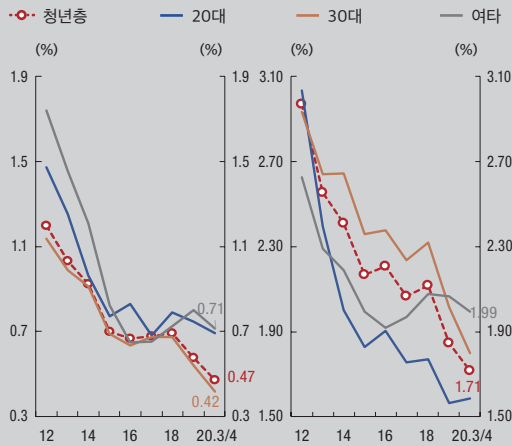
주: 1) NICE 신용이력 보유자의 소득 중 하위 30%를 저소득으로, 신용평가등급(총 10등급) 중 7~10등급을 저신용 등급으로 분류
2) 기말 차주 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연체율) 청년층 차주의 연체율은 여타 연령층보다 소폭 낮은 수준에서 대체로 하락하여 금년 3/4분기말 0.47%를 기록하였다. 특히 30대의 연체율(0.42%)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전 연령대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청년층 차주 중 연체차주 비중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금년 3/4분기말에는 여타 연령층(1.99%)보다 낮은 1.71%를 기록하였다.

6) 다중채무자(금융기관 대출 3건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의미한다.

7) 가계대출의 연체율 하락, 정부의 개인신용 회복 지원노력,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등급이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청년층 가계대출 연체율¹⁾ 청년층 연체차주¹⁾ 비중



주: 1)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 연체액, 연체기간, 가계대출 포괄범위 등과 차이가 있음.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할 정도는 아니나 최근과 같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⁸⁾ 따라서 청년층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신용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는 청년층의 전월세 및 주택 매입 수요 증가, 주식투자 수요 확대 등 수요측 요인에다, 청년층의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 정부의 청년층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강화 등 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였다.

청년층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채무상환부담은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가계대출은 비교적 금리 수준이 낮은 은행권의 보증부 또는 담보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DSR도 하락한 가운데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대를 중심으로 레버리지(LTI)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취약차주 비중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

8) 아울러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부채 증가는 경제 전체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